World Cup AGAIN 2002

약체들 선전… 한국·호주·우크라 등 돌풍 후보

■ 축구 변방국가들 '언제 일낼까'

에콰도르, 폴란드 2-0 꺾어 '이변'

10일(이하 한국시간) 개막돼 11일 오전까지 5경기를 치른 2006 독일월드컵 축구대회에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이변은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는 개막전부터 세네갈이 전 대회 우승팀 프랑스를 1-0으로 격침시켰고 1998년 프랑스 월드컵 D조 1차전에서 나이지리아가 '무적 함대'로 불리는 스페인을 3-2로 쓰러뜨렸던 것 같은 화끈한 결과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열린 다섯 경기에서 약세로 예상됐던 나라들이 비교적 선전을 펼쳐 팬들이 은근히 기대하는 '깜짝쇼'가 곧 터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지금까지 이변이라 부를만한 경기는 첫날 A조의 에콰도르가 폴란드를 2-0으로 이긴 것과 11일 경기에서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스웨덴과 득점없이 비긴 것이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39위인 에콰도르는 29위 폴란드를 맞아 경기 내용 면에서는 약간 밀렸으나 카를로스 테노리오, 아구스틴 델가도 등 간판들이 제 몫을 해내며 완승을 거뒀다.

또 인구 130만명으로 이번 대회 32개국 중 가장 작은 규모의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스웨덴을 맞아 1명이 퇴장당하는 악조건 속에서도 0-0 무승부를 끌어내 전세계 축구팬들의 박수를 받았다.

패하긴 했지만 코스타리카와 파라과이의 선전도 인상적이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지난 9일 인터넷 보도를 통해 '올해의 그리스가 될만한 나라들'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돌풍의 주인공 후보들을 꼽았는데 우크라이나, 코트디부아르, 멕시코, 미국, 이란, 한국, 호주, 세르비아-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의 9개 나라를 들었다. 이렇듯 대회 초반이기는 하지만 약팀들의 선전이 계속되고 대승-대패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축구가 세계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폴란드와 에콰도르 전에서 폴란드의 에우제비우시 스몰라레크(가운데)가 에콰도르 두 수비수의 집중마크를 당하고 있다. 에콰도르가 2대0으로 승리한 이 경기가 개막초기 작은 이변으로 꼽히고 있다. /AFP=연합뉴스

오프사이드 완화·팀 가이스트… 골 풍년 예고

아르헨-코트디부아르 경기서 입증

2006 독일월드컵에서 기존 대회와 달리 규정이 바뀌어 선수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오프사이드 반칙이다.

기존에는 공격수가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공격의향을 보이기만 하면 무조건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지만 이번 대회부터는 공격수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더라도 직접 공격에 가담해 볼을 건드리지 않으면 깃발을 들지 않기로 했다.

11일 오전(한국시간) 함부르크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아르헨티나-코트디부아르의 독일월드컵 본선 C조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는 바뀐 오프사이드 규정을 확실히 알 수 있게 해주는 두 개의 장면이 나왔다.

첫번째 장면은 전반 38분 아르헨티나의 두 번째 골이 성공됐을 때다. 아르헨티나 키 플레이어 후안 로만 리켈메(비야레알)가 뒷공간을 노리고 상대 수비라인 사이로 킬 패스를 찔러줬다. 당시 아르헨티나 공격수 에르난 크레스포(첼시)는 수비수보다 더 전방에 서 있었지만 리켈메의 패스를 왼쪽에서 침투하던 하비에르 사비올라(세비야)가 이어받아 골을 넣었기 때문에 오프사이드가 선언되지 않았다.

두 번째 장면은 후반 40분. 리켈메가 아크 왼쪽 정면에서 중거리슈팅을 때린 것을 코트디부아르 골키퍼가 쳐내 흐른 볼을 골지역 왼쪽에서 쇄도하던 막시 로드리게스(A마드리드)가 넘어져있는 골키퍼 위로 차 넣어 골문을 갈랐는데 곧바로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다. 오프사이드 반칙이 선언된 것이다. 즉 리켈메가 슈팅을 날릴 때는 오프사이드가 아니었지만 볼을 건드리는 순간 반칙이 되는 것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골키퍼들 "가볍고 빠르다" 불만

독일 월드컵 개막전부터 골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회 공인구인 '팀 가이스트'에 대한 각국 골키퍼들의 불만이 늘고 있다.

11일(한국시간) 미국의 스포츠전문 웹사이트인 폭스 스포츠에 따르면 이미 '팀 가이스트'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잉글랜드 골키퍼 폴 로빈슨에 이어 미국대표팀 수문장인 케이시 켈러도 비난 대열에 가세했다고 전했다.

로빈슨과 켈러는 이영표가 뛰고 있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튼햄 핫스퍼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인연이 있고 이들은 '팀 가이스트'가 '너무 가볍고 빠르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한다.

켈러는 "팀 가이스트가 아주 가벼워 다른 공보다 훨씬 빠르게 공기를 가를 뿐 아니라 날아오는 공을 멈추게 하는 것도 힘들게 하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따라서 골키퍼가 슈팅을 막기 위해서는 평소보다 빨리 판단을 내린 뒤 민첩하게 움직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세계적인 스포츠 용품업체 아디다스사가 제조한 '팀 가이스트'는 공을 구성하는 가죽조각의 수를 기존 32개에서 14개로 줄임으로써 완벽한 구형에 가깝도록 만든 게 특징이다.

특히 볼에 회전을 많이 먹도록 외피에 특수 재질이 가미돼 수중전에서 골키퍼들은 더욱 슈팅을 막아내기 힘들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완화된 오프사이드 규정과 함께 '팀 가이스트'로 이번 독일월드컵은 화끈한 골풍년을 예고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가나 "아프리카 폭탄은 우리다"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에 나서는 가나가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터지곤 하는 '아프리카 폭탄'을 자처했다. 가나의 주장 스티븐 아피아는 13일 오전 4시 유럽의 강호 이탈리아와 E조 1차전을 앞두고 AP통신에 "카메룬과 세네갈을 보라"며 "이탈리아는 훌륭한 팀이지만 우리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대회들을 돌이켜 볼 때 아프리카 팀들이 유럽과 남미의 거함을 격침한 적이 몇 차례 있었다.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서는 카메룬이 조별리그 1차전에서 아르헨티나를 1-0으로 꺾는 이변을 일으켰고 2002년과 98년에는 세네갈과 나이지리아가 첫 경기에서 각각 프랑스와 스페인을 격침했다. 이탈리아도 그간 '검은 대륙'이 일으킨 이변이 내심 부담스러운 모습이다. 마르첼로 리피 이탈리아 감독은 "긴장되지만 재미있기도 하다"며 "가나전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전이다. 신경이 쓰이는 게 정상이다"고 말했다. 가나 포워드 매슈 아모아는 "쟤들이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우리는 잃을 게 없다"고 돌아가는 분위기를 설명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48위 가나는 아프리카네이션스컵을 4차례나 제패한 강호이지만 월드컵에서는 운이 없게도 9차례 예선탈락만 한 게 성적의 전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무등기 고교야구 오늘 팡파르

제13회 무등기 고교야구

동성·진흥·광주일고 등 25개팀 참가 8일간 열전

신록이 푸르른 6월, 무등기 탈환을 위한 고교야구 유망주들의 힘찬 질주가 시작된다.

제13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광주일보사·대한야구협회 공동 주최)가 전국 25개 고교팀이 참가한 가운데 12일 광주무등경기장에서 8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오는 19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광주일고와 동성고, 진흥고, 천안북일고 등 쟁쟁한 야구 명문들이 치열한 지역 예선을 뚫고 총 출동한다.

올해로 13년째를 맞는 전통의 무등기 답게 학생다운 패기와 아마추어리즘으로 뭉친 각 팀들이 동문, 재학생들의 뜨거운 응원속에 매경기 치열한 명승부를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팀들은 12일 오후 1시 천안 북일고와 광주 동성고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무등기 탈환을 위한 숨막히는 대 접전을 벌이게 된다.

지난 대회 우승팀인 북일고와 지난해 대통령배 우승팀인 동성고의 개막전 첫 경기는 결승전이나 다름없는 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

무등기와 유독 인연이 깊은 동성고는 양현종(3년), 윤명준(2년) 등 최강 마운드를 앞세워 통산 4번째 우승을 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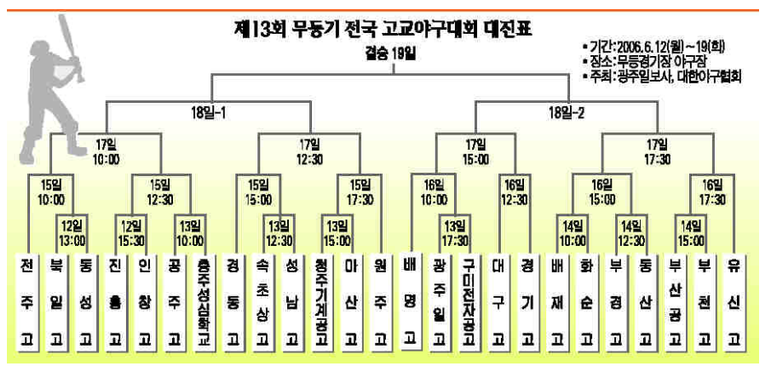
전국에서도 최상급 좌완 투수로 손꼽히는 양현종은 140km대의 강속구를 무기로 이번 무등기 탈환의 선봉장에 섰다.

이에맞선 북일고도 고교 정상급 우완 장필준과 좌완 김경택, 낙차 큰 커브가 일품인 우완 장효훈, 좌완 윤기호로 이어지는 '우-좌-우-좌' 의 짜임새 있는 마운드로 2년 연속 무등기 우승을 자신하고 있다.

한편 이번 대회는 대한체육회와 광주시체육회, 전남도 체육회 등이 공동 후원하고 KBS 스카이 채널과 KBC 광주방송이 중계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의 무등기 야구
1회전
북일고-동성고(13시)
진흥고-인창고(15시 30분)



한기주 호투… KIA 4연승

한화전 7이닝 무실점 3-0승리

신인 사상 최대인 계약금 10억원을 받고 올 시즌 프로 무대에 입문한 한기주(19·KIA)는 신인왕 후보 '0순위' 라는 극찬속에 정규시즌을 맞이했다.

하지만 프로 데뷔 첫 경기인 지난 4월 9일 대전 한화전서 4이닝만에 5실점을 내주는 충격패를 당한 이후 피칭은 자신감을 상실했고 선발 출전한 9경기에서 2승 6패라는 부진한 성적을 거뒀다.

결국 지난달 21일에는 스스로 미들맨을 자청하고 광주 LG전서 마무리 투수로 출전하기도 했다.

150km대를 넘나드는 최고의 구질을 가진 한기주도 프로무대 첫 경기에서 얻어맞은 충격을 떨쳐버리기엔 쉽지 않았던 것이다.

KIA의 김봉근 투수코치도 당시 "불펜에서는 위력적인 볼을 던지는데 막상 마운드에 오르면 자신감을 상실한 피칭으로 경기를 어렵게 풀어가고 있다" 며 걱정스런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다.

한화전 첫 패배 이후 두달여만인 11일 한기주는 한화와 시즌 두번째 맞대결에서 자신이 당한 '모욕' 을 무결점 피칭으로 되돌려 줬다.

한기주는 이날 광주구장에서 열린 한화전에 선발로 나서 7이닝 5안타, 1삼진, 무실점으로 쾌투하며 팀의 4연승을 이끌었다.

KIA는 3회 손지환과 이용규의 연속 안타로 만든 무사 1,2루에서 김종국의 희생번트와 장성호의 희생 플라이로 1점을 뽑아냈고 6회 이재주의 중월 솔로포로 1점을 보탰다. KIA는 9회에도 이용규의 좌전안타와 장성호의 좌익선상을 타고 흐르는 2루타로 1점을 추가, 3-0으로 승리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프로야구 중간순위 (11일현재)

순위	구단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1	삼성	29	20	2	0.592	-	1패
2	한화	29	21	1	0.580	0.5	2패
3	현대	29	22	0	0.569	1.0	1승
4	**KIA**	**25**	**22**	**2**	**0.532**	**3.0**	**4승**
5	두산	23	23	2	0.500	4.5	6승
6	SK	25	26	0	0.490	5.0	3패
7	LG	20	30	1	0.400	9.5	4승
8	롯데	16	32	0	0.333	12.5	3패

박세리가 11일 열린 LPGA 맥도널드 챔피언십 3라운드 4번홀에서 티샷을 하고 있다. 박세리는 선두에 2타 뒤진 공동6위에 올라 화려한 부활을 예고했다. /AFP=연합뉴스

한국 낭자들 무더기 우승권 진입

김미현·위성미·안시현 1타차 공동 3위

LPGA 맥도널드 챔피언십 3R

이미나·이지영·박세리 공동6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 우승 각축이 한국 선수들끼리 집안 싸움이 됐다.

11일(한국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하브드 그레이스의 불록골프장(파72·6천596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맥도널드챔피언십 3라운드에서 김미현(29·KTF), 위성미(17·나이키골프), 안시현(22) 등 3명이 공동선두 미야자토 아이(일본)와 팻 허스트(미국)에 1타 뒤진 공동3위에 포진했다.

김미현과 위성미, 그리고 안시현은 악천후로 경기가 중단되는 어수선한 가운데 나란히 1언더파 71타를 때려 중간합계 6언더파 210타로 역전 우승 사정권에 진입했다.

통산 6승을 올리면서도 메이저 왕관이 없는 게 아쉬웠던 김미현으로서는 8년째 미뤄왔던 메이저대회 정상에 올라설 기회를 잡아낸 셈.

또 '천만달러의 소녀' 위성미는 17번홀(파3)에서는 45㎝ 짜리 파퍼트를 놓치는 어이없는 실수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04년 신인왕 안시현도 2003년 CJ나인브릿지클래식 우승 이후 3년만에 LPGA 투어 대회 우승컵을 노려볼 수 있게 됐다.

한국 선수로는 유일하게 이 대회 우승을 경험했던 박세리(29·CJ)가 사흘 내내 언더파 스코어를 내면서 선두에 2타 뒤진 공동6위(5언더파 211타)에 올라 화려한 부활을 예고했다. 또 3언더파 69타의 선전을 펼친 이미나(25·KTF)와 2타를 줄인 새내기 이지영(21·하이마트)도 박세리와 함께 공동6위를 달려 무려 6명의 한국 선수가 최종일 우승 각축을 벌이게 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스포츠중계

12일(월)

▲메이저리그<클리블랜드-시카고W> (08 : 55·Xports)

▲제13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개막전(13 : 00·KBS SKY SPORTS)